

현대제철, 미래차 소재개발 확대... 글로벌 경쟁력 강화

현대제철
지진에 강한 철
H(CORE)

세계 경쟁력 있는 철강사 10위
차 강종별 공장·설비 공격 투자
현대차 수소전기차 로드맵 따라
금속분리판 생산능력 확충 나서

현대제철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신
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.

현대제철은 최근 세계적인 철강전문
분석기관인 WSD(World Steel Dyna
mics)가 주관하는 '세계에서 가장 경쟁
력 있는 철강사' 10위에 선정되는 등 글
로블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.
특히 지난해 수요산업 침체, 수출대상
국들의 수입규제 강화 등 어려운 시장
환경 속에서 달성한 성과여서 더욱 값
진 것으로 평가된다. 또 현대제철은 공
격적인 신규 투자와 글로벌 시장 확보
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
기울이고 있다.

◆글로벌 자동차강판시장 점유율 확대



'2019 상하이모터쇼'에서 현대제철이 론칭한 자동차 브랜드 'H-SOLUTION'과 자체적으로 설
계 및 제작한 미래지향적 콘셉트카 'H-SOLUTION EV'.

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
자사의 핵심 분야인 자동차 강재의 글
로블 판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
다. 글로벌 자동차강판 시장의 경쟁우
위 확보와 점유율 확대를 위해 강종별
전용화 공장 운영 및 설비 신에와 투자
등을 통한 최고 수준 품질 달성과 더불
어 활발한 신규 강종 개발 및 고객사 확
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. 올해 글로벌 자
동차 판매목표는 80만톤이며 올 1분기

에는 전년동기비 16% 증가한 16만3000
톤의 판매를 기록했다.

또 양산체제를 구축한 특수강 공장의
생산 및 품질 안정화를 바탕으로 자동
차용 제품 공급을 늘려가고 있으며, 저
원가·고수익 강종 개발 확대로 글로벌
경쟁력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.

현대제철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성장
에 대응하는 신규투자를 활발히 진행중
이다. 올해 3분기 본격 가동되는 기아차

인도 신공장에 차강판을 공급하기 위해
아난타푸르 스틸서비스센터를 지난 3
월 조기가동했다. 총투자비용은 470억
원 수준으로 향후 30만대 수준의 자동
차 생산에 필요한 차강판 공급이 가능
하다. 향후 인도 내 고성장 자동차 수요
가 늘어남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을 기
대하고 있다.

현대제철은 신규사업 투자에도 적극
나서고 있다. 현대차그룹의 수소전기차
로드맵에 따라 중장기적 금속분리판 생
산능력 확충에 나서고 있으며, 당진에
위치한 첫 번째 양산공장이 3월 상업생
산을 개시했다. 금속분리판 1공장은 추
가 설비투자를 통해 수소전기차 1만
6000대에 해당하는 생산능력을 연말까
지 갖출 계획이며, 현재 2020년 이후의
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2공장 투자검토
를 진행 중이다.

◆철강 전문 브랜드로 제품 차별화

현대제철은 특화된 철강 브랜드를 잇
달라 출시, 철강 전문 브랜드로 신시장
을 개척하며 철강 산업의 패러다임 변
화를 리드하고 있다. 현대제철은 지난
2017년 내진용 철강재 브랜드인 'HCO
RE(에이치코어)'를 출시한데 이어 올

해 자동차 전문 브랜드인 'H-SOLUTI
ON(에이치솔루션)'을 론칭했다.

현대제철 'H-SOLUTION'은 고장
력·하트스탬핑 등 자동차용 소재 단위
에서부터 성능과 원가, 품질을 향상시
킬 수 있는 물성·성형·용접·방청·도장·
부품화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의미하는
브랜드다. 현대제철은 'H-SOLUTIO
N'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초고강도
경량차체를 실현하겠다는 현대제철의
의지를 담았다.

현대제철은 올해 4월 중국 상하이 국
가회전중심(NECC)에서 열린 2019 상
하이모터쇼에서 'H-SOLUTION'을
적용한 미래지향적 콘셉트카 'H-SOL
UTION EV(이하 EV)'를 공개해 관람
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. EV는 국
가별 연비규제 강화에 따라 지속적으로
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고
미래 자동차 소재에 대한 현대제철의
기술력을 소개하기 위해 개발됐다.

안정성과 소재 면에서 최적의 설계를
적용한 EV는 주요 차량 충돌 법규를 만
족하며, 다양한 경쟁 소재 적용으로 동
급 EV 차체 대비 9%의 경량화를 달성
했다. /양성운 기자 ysw@metroseoul.co.kr

자유롭게 빌려쓰는 재해복구시스템 개발

SK㈜ C&C

제트컨버터 등 3사와 손잡고
클라우드 제트 DRaaS 협력

SK㈜ C&C가 '온리온 재해복구(D
R) 센터 서비스'를 개발한다. 기존 시스
템은 물론 모든 종류의 클라우드 시스
템을 하나로 수용해 기업의 재해복구를
도울 계획이다.

SK㈜ C&C는 24일, 경기도 판교 캠퍼
스에서 SK㈜ C&C 신현석 플랫폼 오
퍼레이션 그룹장과 제트컨버터 민동준
대표, 아토리서치 정재웅 대표, 에스피
테크놀로지 정정문 상무가 참석한 가운
데 'Cloud Z(클라우드 제트) DRaaS
(서비스형 재해복구) 사업 협력 협약'을
체결했다.

이번 협약은 SK㈜ C&C 대덕 데이
터센터에 멀티 클라우드와 기존 시스
템을 통합 수용하는 '온리온 재해복
구 센터'를 구현해, 국내 기업들이 재
해 복구 서비스를 언제든 자유롭게 빌
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
이다.

이번 협약에 따라 4개 사는 SK㈜ C
&C의 클라우드 재해복구 시스템 및 서
비스 설계를 기반으로 ▲제트컨버터의
클라우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등 재해
복구 솔루션 ▲아토리서치의 소프트웨어

어 정의 네트워크 및 가상화 기술 기반
플랫폼 ▲에스피테크놀로지의 클라우
드 포털 솔루션 등을 '클라우드 제트 D
RaaS'에 접목시킬 예정이다.

클라우드 제트 DRaaS의 최대 강점
은 고객이 사용 중인 모든 클라우드와
시스템을 전용 재해복구 센터로 통합해
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. 그동안 기업
들은 자신이 쓰는 IT인프라·클라우드
시스템 별로 재해복구 체계를 이용할
수 밖에 없어 구축과 모니터링에 많은
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왔다.

클라우드 제트 DRaaS를 활용하면 E
RP 시스템의 회계·생산 업무는 AWS,
애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구현하고
인사·구매 업무는 기존 시스템(온프레
미스)으로 사용하고 있어 'ERP 시스
템 재해복구' 하나로 묶어서 시스템과
데이터 백업을 한번에 끝낼 수 있다.

단순 데이터 저장·운영뿐만 아니라
전문 재해복구 센터로서의 각종 서비스
도 다양하게 준비 중이다. 고객별 재해
복구 시스템 모니터링은 물론 각종 테
스트와 모의훈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
이다.

클라우드 시스템과 데이터 규모에 따
라 다르지만 재해복구 서비스 설계에서
구축·운영까지 1~2개월이면 가능하다.

/구서윤 기자 yuni2514@



기아차 K7 프리미어.

기아차 'K7 프리미어' 출시 사전계약 8023대 역대최고

K7상품성 개선 등 부분변경
7월1일까지 시승체험단 모집

기아자동차가 K7 부분변경 모델 'K
7프리미어'의 가격을 확정하고 정식 출
시했다.

24일 기아차에 따르면 K7 프리미어
는 2016년 1월 출시된 K7의 상품성 개
선 모델로, 차세대 엔진과 최첨단 기술
등이 적용된 프리미어 준대형 세단이다.

판매가격은 ▲2.5 가솔린 프레스티지 3102만원, 노블레스 3367만원 ▲3.0
가솔린 노블레스 3593만원, 시그니처 3799만원 ▲2.4하이브리드프레스티지 3622만원, 노블레스 3799만원, 시그니처 4015만원 ▲2.2 디젤 프레스티지 3583만원, 노블레스 3760만원 ▲3.0 L
Pi 프레스티지 3094만원, 노블레스

3586만원 등이다.

기아차 최초 차세대 엔진인 스마트스
트림 G2.5 GDi 엔진을 적용한 2.5 가솔
린 모델은 최고출력 198마력, 최대토크
25.3kgf·m, 3.0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
력 266마력, 최대토크 31.4kgf·m의 성
능을 발휘한다. 2.2 디젤 모델은 최고출
력 202마력, 최대토크 31.4kgf·m, 3.0
LPi 모델은 최고출력 235마력, 최대토크
28.6kgf·m의 힘을 발휘한다.

K7 프리미어는 후측방 모니터, 차로
유지 보조, 외부공기 유입방지 제어 등
최고 수준의 첨단 지능형 주행안전 기
술과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가
되는 12.3인치 대화면 AVN과 풀 컬러
TFTLCD 클러스터, 조작성을 높인 변
속레버, 카투홈·홈투카 기능 등 편의사
양을 대거 탑재했다.

K7 프리미어는 사전계약을 시작한

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영업일 기준 8
일 간 총 8023대의 계약대수를 기록했
다. 첫날에만 사전계약이 2500대 몰리
며 준대형 시장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.

한편 기아차는 K7 프리미어의 가치
를 고객들이 직·간접적으로 체험할 수
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
다. 기아차는 24일부터 배우 유지태가
출연하는 K7 프리미어 브이로그(V-L
og) 콘텐츠 3편을 유튜브, 페이스북 등
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.

고객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. 기아차
는 7월 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K7 프
리미어 시승 체험단을 모집한다. K7 프
리미어 시승 체험단에 선정되면 일주일
간 시승체험을 할 수 있으며, 베스트 리
뷰어는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제
공받게 된다.

/양성운 기자

두산인프라코어,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협력사 육성

5개사와 '리딩 서플라이어' 시작

두산인프라코어가 협력사 맞춤형 지
원 프로그램인 '2019 리딩 서플라이어'
활동을 시작한다.

24일 두산인프라코어에 따르면 리딩
서플라이어는 선진 사례와 혁신 기법을
전파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두산
인프라코어 동반성장 활동이다. 자체적

인 협력사 육성 프로그램을 기반으로
협력사의 생산 운영, 품질 보증, 제조
기술 등을 지원한다.

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리딩 서플라
이어 대상 업체로 선정된 5개 협력사와
육성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
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. 우선 협력사
의 제품 품질과 납기 준수율을 개선하
는데 집중하고,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

협력사 스스로 개선활동을 지속할 수
있도록 육성기, 사후관리, 자생력 강
화, 내재화 등 총 4단계로 활동을 세분
화했다.

올해는 특히 생산 전 과정을 디지털
화하는 솔루션을 결합해 생산성과 품
질,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스마트 팩토
리 구축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할
계획이다. /양성운 기자



24일, 경기도 SK㈜ C&C 판교캠퍼스에서 에스피테크놀로지 정정문 상무, 아토리서치 정재웅
대표, SK(주) C&C 신현석 플랫폼 오퍼레이션 그룹장, 제트컨버터 민동준 대표(왼쪽에서 네번
째부터 차례로) 등 4사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'Cloud Z(클라우드 제트) DRaaS(서비스형 재해
복구) 사업 협력 협약(MOU)'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. /SK㈜ C&C